

詩僧 鼎鎬禪師의 시세계

김 미 선 *

<目次>

- | | |
|----------------------|-----------------|
| I. 研究의 方向 | IV. 鼎鎬詩의 作品 內容 |
| II. 鼎鎬詩의 形成背景 및 形成過程 | V. 鼎鎬詩의 位相 및 整理 |
| III. 鼎鎬詩의 分析 | |

<국문 초록>

本論考는 근대 한국불교의 크신 지도자 鼎鎬 禪師의 시세계를 다루었다. 먼저 연구 방향은 정호선사의 시문이 형성된 배경과 과정을 정호선사의 대략적인 생애 및 법맥을 짚어보면서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정호선사의 전반적인 작품을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특질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정호시의 작품 내용에서 본고의 연구 범위는 禪家詩와 詠物詩로 한정하였으며 정호선사의 시문학이 우리 한국 선가시사에 어떠한 위상을 가지는지 考究해 내는 것을 본고의 연구 범위로 한정하였다.

鼎鎬는 映湖 朴漢映(1870~1948)스님을 말한다. 법호는 영호 범명은 정호 속명은 박한영이다. 또는 석전이라는 아호로 더욱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韓龍雲(1879~1944), 白龍城(1864~1940)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개화기와 식민지 시대를 적극적인 현실인식과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로 살았던 근대 불교계의 거목이다.

정호는 일제에 의해 정체성을 잃어 가는 민족불교를 지키기 위해 앞장섰으

* 청주대학교 한문교육과 전임강사 / hawoodang@hanmail.net

며, 조선후기 배불정책의 후유증에 휘청거리는 불교계의 유신을 위해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불교유신론을 주창하기도 하였다. 특히 영재교육을 통한 불교계의 불교 개혁과 민족강생을 위해 한평생 혼신의 힘을 바쳤던 선지식인 이었다.

이처럼 근·현대 불교계의 講·禪·律·詩를 겸비한 대표적인 物外道人이라 할 수 있는 정호에 대한 소개는 그간 간헐적으로 있어 왔으므로 그 편린이 다소나마 알려져 있지만, 詩人으로서의 정호, 특히 禪詩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나 연구는 ‘전무하다함’이 필자의 과문의 탓만은 아닐 줄 안다.

정호는 우리나라 선시의 맥을 계승 발전 시켜 萬海 韓龍雲 등 후대 詩僧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줌으로써, 鼎鎬詩가 禪詩史를 포함한 佛家文學 및 韓國漢詩史에 끼친 영향과 그 詩史的 위상이 매우 중요하게 자리 매김 되어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룰 ‘鼎鎬禪師의 시세계’ 논의로 이후 정호의 시문학에 대한 활발한 연구의 필요성 제고가 되기를 기대하며, 그것만으로도 보람으로 삼고자 한다.

【주제어】 鼎鎬禪師, 禪家詩, 詠物詩, 佛家文學

I. 研究의 方向

本論考는 근대 한국불교의 크신 지도자 鼎鎬 禪師의 시세계를 다루고자 한다. 먼저 연구 방향은 정호선사의 시문이 형성된 배경과 과정을 정호선사의 대략적인 생애 및 법맥을 짚어보면서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하여 정호선사의 전반적인 작품을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특질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정호시의 작품 내용에서 본고의 연구 범위는 禪家詩와 詠物詩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호선사의 시문학이 우리 한국 선가시사에 어떠한 위상을 가지는지 考究해 내는 것을 본고의 연구 범위로 삼고자 한다.

鼎鎬는 映湖 朴漢映(1870~1948)스님을 말한다. 법호는 영호 법명은 정호 속명은 박한영이다. 또는 석전이라는 아호로 더욱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韓龍雲(1879~1944), 白龍城(1864~1940)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개화기와 식민지 시대를 적극적인 현실인식과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로 살았던 근대 불교계의 거목이다.

정호는 일제에 의해 정체성을 잃어 가는 민족불교를 지키기 위해 앞장섰으며, 조선후기 배불정책의 후유증에 휘청거리는 불교계의 유신을 위해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불교유신론을 주창하기도 하였다. 특히 영재 교육을 통한 불교계의 불교 개혁과 민족갱생을 위해 한평생 혼신의 힘을 바쳤던 선지식인이었다.

이처럼 근현대 불교계의 講·禪·律·詩를 겸비한 대표적인 物外道人이라 할 수 있는 정호에 대한 소개는 그간 간헐적으로 있어 왔으므로 그 편린이 다소나마 알려져 있지만, 詩人으로서의 정호, 특히 禪詩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나 연구는 ‘전무하다함’이 필자의 과문의 탓만은 아닐 줄 안다.

정호는 우리나라 선시의 맥을 계승 발전 시켜 萬海 韓龍雲 등 후대 詩僧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줌으로써, 鼎鎬詩가 禪詩史를 포함한 佛家文學 및 韓國漢詩史에 끼친 영향과 그 詩史的 위상이 매우 중요하게 자리매김 되어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룰 ‘鼎鎬禪師의 시세계’ 논의로 이후 정호의 시문학에 대한 활발한 연구의 필요성 제고가 되기를 기대하며, 그것만으로도 보람으로 삼고자 한다.

II. 鼎鎬詩의 形成背景 및 形成過程

먼저 정호선사의 시문학 형성과정을 그의 생애와 수행자의 삶의 法脈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정호시의 형성 배경

정호 박한영은 서기 1870년 고종7년 음력 8월18일 全北 完州郡 草浦

面 鳥沙里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던 密陽 朴氏 聖鏞과 진양 姜氏를 부모로 하여 태어났다.¹⁾

爲堂 鄭寅普(1893~?)가 1939년에 지어 『石顛詩鈔』²⁾에 실은 「石顛上人小傳」³⁾에 따르면 정호는 전주사람으로 대대로 농사를 지었으며, 어릴 때부터 남달리 명석해 보고들은 모든 것을 기억할 정도였으나 일찍이 아버지를 여이고 외롭게 지내왔다고 전하고 있다. 19세 되던 해 정호는 모친이 위봉사에서 듣고 온 생사법문을 전해 듣고 發心, 마침내 出家하게 된다. 그가 노년에 이르러 완산 鳳棲寺⁴⁾로 가는 길에 멀리 노을진 고향산천을 바라보며 부모를 그리워하며 지은 시 10수가 『석전시초』에 전한다. 그 중 제9수의

震老眞成跨石門	애타는 노모 뒤로하고 석문을 넘었지
出家存孝哭慈尊	출가로 효도하겠다고 부처님 전 통곡했지만
愧吾不逮嘆風木	못다한 효도 부끄러워 風木을 읊조렸어
稽首西山眠欲昏	서산 향해 머리 조아리니 눈물이 앞을 가리네 ⁵⁾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그리는 애절한 마음이 배어있다. 太祖庵⁶⁾으로 출가해 錦山和尚에게 계를 받고 법명을 鼎鎬라 하였으니, 고종25년 1888년

1) 이러한 내용은 동국대 총장을 지낸 包光 金映遂가 1959년 기해년 9월에 지어 『石顛文鈔』에 붙인 「故太古禪宗教正映湖和尚行績」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성균관대 교수를 지낸 成樂熏이 1965년 12월에 찬한 「華嚴宗主 映湖堂 大宗師 扶宗樹教之碑」에는 정호의 생일이 8월 16일로 기록되어 있어, 재고의 여지가 있는 셈이다.

2) 映湖, 『石顛詩鈔』, 東明社 影印本, 昭和 15年 9月 16日 발행.

3) 鄭寅普, 『石顛詩鈔·上』, 「石顛上人小傳」.

4) 완산은 지금의 완주이다. 鳳棲寺는 조선중기 一玉震默 스님의 출가지로도 매우 유명한 사찰이다. 올해 2008년 4월 초파일에 필자가 봉서사를 다녀왔는데 봉서사 주련에는 지금도 일옥선사의 悟道頌이 전해지고 있다. “天衾地 席山爲枕 月燭雲屏海作樽 大醉居然仍起舞 却嫌長袖掛崑崙”

5) 映湖, 『石顛詩鈔·下』 「有完山鳳棲寺行 鳳山斜日 遙望故里感舊」其九.

6) 太祖庵은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추줄산에 있는 절이다.

무자년 봄의 일이다. 다음 시를 보면,

(前略)

落落意難合 낙낙한 뜻이 합치되기 어려워서
 數載守空門 몇 해 동안 空門만 지켜왔네.
 逢話春夢老 춘몽노인을 만나 나눈 담론은
 剖判一生論 우주의 생성과 한 생의 논의였는데
 枳林悠然脫 지림에서 유연히 속세를 벗어나
 南爲志游鯤⁷⁾ 남으로 가 크게 놀기를 뜻했다네.⁸⁾

라고 하여 절에 온지 몇 해가 지나도 마음이 떳떳하지가 못했다가 춘몽도인의 ‘剖判一生論’을 듣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 남쪽으로 나섰다고 정호는 밝히고 있다.⁹⁾ 그러다가 그가 큰 그릇임을 안 자칭 일장춘몽도인으로부터 좋은 스승을 찾아가 공부하라는 독려를 받고 백양사 운문암에 들어가 본격적인 수도의 길로 나선다.

당시 운문암에는 여러 고승들이 주석하고 있었는데, 스님을 보고는 화엄보살이 찾아왔다고 기뻐하면서도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곳에서 정호는 21세 되던 1890년 늦은 봄 幻應 坦泳(1847~1929)¹⁰⁾에게 사교를 마친다.

7) 『莊子』, 「逍遙遊」

8) 映湖, 『石顛詩鈔·上』, 「稀朝自述九章·三 離家棲雲」

9) 필자가 정호의 法孫인 대흥사 門徒에게서 전해들은 逸話로 정호의 제자인 雲起和尚은 정호의 일화를 다음과 같이 전한 것이 있다. “정호는 무랭이절이라 불리던 곳에서 사미시절을 보냈는데 신도들의 요강을 비우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주된 일과였다.”고 한다.

10) 환응은 무장현 출신으로 金官 金氏 基愚와 박씨부인을 어머니로 하여 태어났다. 14세 때 선운사 性諡長老에게 득도하고 鏡潭의 법을 받았다. 백암산 운문암에서 십수년 간 화엄법계를 설하다가 말년 무렵에는 도솔산에 愚隱庵이라는 토굴을 짓고 은거하며 서래종지를 참구하였다. 율을 엄정히 했으며 교와 선에 모두 밝았다. 1912년에 백양사주지, 1927년에는 조선불교 중앙총회에서 지금의 종정인 敎正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1929년 4월7일 83세로 열반하니 사리 13과가 나왔다.

정호는 환응의 사리탑명¹¹⁾을 지으면서 설과 뒤에 백과, 백과 뒤에 환응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그를 추존했다.¹²⁾ 그는 1890년 8월 擎雲 元奇(1852~1936)가 주석하고 있는 순천 조계산의 선암사를 찾아갔다. 그곳에는 函溟 景鵬도 있었다. 이름난 강백으로 훗날 왜색 불교화 반대운동에 함께 했던 錦峰 陳震應과의 첫 만남도 이곳에서 이뤄진다.

경운은 경남 진해출신으로 선암사 대승암에 강석을 차리고 있었다. 평생을 문밖을 나서지 않고 지낸 것으로 유명한데, 글씨를 특히 잘 썼고, 그 계행이 엄정했을 뿐 아니라 교학과 시문, 유학에도 뛰어나 당시 대교사로 불렸으니 정호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친 사람 중 하나였다. 정호는 그의 비명인 「曹溪山擎雲堂大師碑記陰」¹³⁾을 썼다.

경운의 편지를 받고 답한 정호의 다음 시를 보면 공경함이 물씬 묻어난다.

陽生梅發雁來初	따사한 햇볕에 매화 피고 기러기 날아들 제
歛衽雙擎一素書	주신 편지 옷을 여미고 두 손으로 받았습시다.
字眞珠撒輝江際	글씨는 강기슭에 흩뿌려놓은 진주와 같고
詞合蘭芳透谷餘	시구는 골짜기 넘치는 난초 향기와도 같습니다.
遙將妙手雲猶按	아스라한 묘수로 구름을 어루만지신 듯해서
難點頑頭石不如	저와 같은 막돌로는 점치기조차 어렵습시다.
弟子酣嬉依昔日	제자는 별 탈 없이 옛날처럼 지내오니
可能許賜出門車	가능하시면 산문을 나와 남셨으면 합니다. ¹⁴⁾

경운과 자신을 구름과 돌에 비유한 것은 경운의 ‘雲’과 정호의 雅號인 石顛의 ‘石’에서 얻어내어 비유한 듯하다. 이렇게 1892년 대교를 마친 정호는 구암사에서 만암 등에게 사교를 가르친다. 1893년 정호가 24세

11) 이 비의 篆額은 위창 오세창이 했다.

12) 映湖, 「兜率山幻應堂大師舍利塔銘」“(前略) 雪后有白 白后有幻”

13) 映湖, 『石顛文鈔』, 「石林草」

14) 映湖, 『石顛詩鈔·下』, 「仙巖寺擎雲老師寄之詩和韻奉謝」

되는 해, 은사 금산이 함경남도 안변 설봉산 석왕사 내원암에서 입적하자, 정호는 그곳을 떠나 신계사, 건봉사, 명주사 등으로 배움을 얻고자 선지식을 찾아 나선다.

이윽고 동학농민혁명과 갑오경장이 일어나면서 세상은 더욱 뒤숭숭해졌다. 정호는 다시 남쪽으로 발길을 옮겨 1895년 봄, 순창 龜岩寺에서 선문염송을 보고 雪乳處明(1858~1903)의 법을 이으니 법호는 映湖였다.

설유는 내외전에 모두 밝았고 시문과 학문에도 능하여 黃梅泉, 奇松沙, 鄭雲藍 등과 교류했으며, 1903년 12월 26일 세납 46세, 법납 31세로 일찍 입적하고 말았다. 설유의 인품이 매우 따뜻하고 내·외전에 박학했다고 정호는 말하였다.¹⁵⁾

정호는 25세되던 1895년¹⁶⁾ 가을, 설유가 입적하기 8년 전에 이미 그에게서 법을 잇고 강업을 폈다. 가장 중요시되는 法燈은 오직 한사람에게만 가능하다. 석가로부터 이어온 법맥은 그렇게 이어져 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 가운데는 백과나 설두, 설유의 경우처럼 부득이 사형으로부터 법등을 이은 경우도 더러 있었으니, 정호 당시만 해도 得度 師弟之間보다는 법맥을 중시해 왔던 게 사실이다.

- 15) 설유는 법명이 본래 慧悟였는데 뒤에 處明으로 바꾸었으며 속성이 裴씨로 철종 9년 熊川縣 漁隱洞 출신이다. 16세에 석왕사 道雲에게 득도하여 이듬해 은사를 따라 구암사에 취학했으나 은사가 환속한 후 별세해 부득이 雪竇를 은사로 삼았다. 10여년간 그에게 헌말종지를 배웠는데 설두마저 갑자기 입적하여 또다시 부득이 사형인 茶輪翼振의 법을 이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설두의 법손이 되었다. 설유는 평소 대중에게 “내전에 밝고 다른 학문도 섭렵하여 마땅히 出空入有하라. 반드시 천하의 책들을 탐독하고 반드시 천하의 학문을 연구하며 반드시 천하의 명사들과 교류하라. 그런 후에 다시 옛것을 새것으로 만들어 낼 것이니 이래야만 불교를 논한다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한 자는 여름벌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映湖, 『石顛文鈔』, 『石林草·靈龜山雪乳堂大師行略』)
- 16) 그해 3월 29일은 우리나라 불교인들을 포섭하고 환심을 사기 위해 일본 일련종의 승려 佐野前勵의 건백서가 결정적 계기가 되어 인조 때 내려졌던 승니 입적금지령이 272년만에 풀린 해이다. 그러나 이는 3년 후인 광무2년 1898년 다시 번복되었다가 곧 또다시 해제되었다.

불가에서 이 문중의 기능은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지금까지 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정호는 문중 관념에만 연연했던 그런 인물은 결코 아니었다. 「稀朝自述 九章·柱錫搖松」에서 설유에게 배움을 받던 시절을 정호는 이렇게 읊고 있기도 하다.

桂秋一瓣香	가을날 한아름 향기 속에
敬爲雪乳巖	설유스님 가르쳐 주신
禪律雜華嚴	선과 율·화엄 공경스러웠네
兩坡唱導齊	설과·백과는 자주 일러주었으나
傳次在藐躬	다른 스님들에 대해서는 멀기만 해
正若危橋躋	위태로운 다리를 건너감만 같았네 ¹⁷⁾

설유의 가르침은 모두 좋았지만 설과·백과 등을 제외한 다른 스님들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적어 마치 무너질듯한 다리를 건너는 것 같았다고 정호는 말하고 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그가 문중관념에 사로잡혀 先師를 무작정 두둔하거나 추어올리는 인물이 아님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한편 정호가 설유의 법을 이은 순창 영구산 구암사는 내장산과 백암산 중간에 위치한 심산유곡의 작은 사찰로 백제 무왕 25년(624)에 창건된 절이다. 전북 순창군 북흥면 봉덕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과·백과·정관의 부도가 있다. 설과·백과·설두·설유 등이 모두 이곳에 주석했으며, 정호도 이곳에서 선강을 폈다. 그 규모는 비록 보잘 것이 없지만 고승들이 면면히 주석해 선을 꽃피웠고, 강석이 끊이지 않기를 수백년간 해운 탓에 제방에 모르는 이가 없는 절이었다고 정호는 술회하고 있다.¹⁸⁾ 그러나 지금은 선강의 전통이 끊기고, 사찰은 매우 쇠락해져 역사적 전통과 명성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정호가 69세 되던 1935년 3월13일 구암사에서 지은 「龜山¹⁹⁾春雨雜感」

17) 映湖, 『石顛詩鈔·上』 「稀朝自述 九章·柱錫搖松」

18) 映湖, 『石顛文鈔』, 「石林草·重修龜岩寺記」

七首 가운데 첫째 시는 다음과 같다.

故山靈雨似佳人	옛산 신령스런 비 아름다운 여인 같다고나 할까
樹樹妝花呈媚新	나무마다 싱그러운 꽃봉오리 예쁜 눈썹 모양
失侶枝鶉猶挈挈	벗들 잃은 허허로운 심정 나뭇가지 위 새들이 위로하고
映溪的歷寫吾眞	맑은 냇물 들여다보니 나의 지난 모습 아른거리네. ²⁰⁾

정호의 師承에서 반드시 한 번은 짚고 가야할 인물이 설파·백파·설두이다. 그 위로 喚惺志安(1664~1729)이 있고, 그로부터 법을 이어받은 虎岩體淨(1686~?)이 있다.

환성은 1725년 금산사에서 화엄법회를 열었는데 무려 1400여명의 대중이 운집했다고 한다. 그는 이 사건으로 무고를 입어 호남의 오지로 투옥되었다가 제주로 귀양 가 그곳에서 입적했다. 이때부터 한때 화엄강회가 주춤하는 듯 했으나, 호암에 이르러 다시 대둔사 등을 중심으로 화엄의 맥을 이어갔다. 호암 역시 설파와 연담 등을 길러낸 고승이다.

雪坡 尙彦(1707~1791)은 영·정조시대 무장출신으로 전주 이씨다. 19세에 선운사로 입산했으며, 호암의 법을 이어 1739년 용추사에서 개강한 이래 구암사와 백양사 등에 주로 주석했다. 화엄의 금과옥조로 일컬어지는 「清涼鈔摘抉隱科」를 지었으며 징광사판본이 화재로 소실되자 오류부분을 해인사본과 대조 수정하여 安義 靈覺寺에 보관하여 화엄의 해동 중흥주로 불렸다. 1791년(정종15년) 정월 3일 입적한 설파대사의 비는 현재 선운사에 있다. 1796년 3월 당시 우의정 蔡濟恭이 찬하였는데, 1924년 봄 옛 비석을 다시 세우고 정호가 비석 뒤에 후문을 짓고, 성당 김돈희가 글씨를 썼다.

白坡 巨璇(1767~1852)은 무장현 출신으로 전주 이씨다. 영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의 인물로 선조대왕의 생부인 덕흥대원군이 11대조가 된다.

19) 龜山은 龜岩寺가 있는 龜岩山을 가리킨다.

20) 映湖, 『石顛詩鈔·下』, 「龜山春雨雜感」其一.

모친은 김해 김씨이며 대대로 효의 집안이다. 18세 되던 갑진년 4월 8일 詩憲長老에게 출가해 1790년 경술년 가을 설파상언에게 구족계를 받는다. 설파 입적 후 설봉에게 법을 이었으며, 호를 無垢子라 했다. 효행이 뛰어났던 것으로 유명하며 추사 이외에도 당대 명유인 奇正鎭·洪顯周·洪爽周·金履陽 등과도 교유했다.

1811년 45세 때 초산의 용문암에서 떠집을 짓고 참구하다가 1830년 구암사로 이석하며 10년 후 다시 토굴에 은거하다 열반하니 법납 68세 요, 세수 86세였다. 백파의 저서로는 선논쟁으로 화제가 되었던 『禪文手鏡』을 비롯해 『定慧結社文』·『法寶檀經要解』·『五宗綱要記』·『禪門拈頌記』·『高峰禪要記』·『金剛八解經』 그리고 의식집인 『龜鑑集』 등이 있으며 『太古歌釋』·『識智辨說』 등이 금강산 신계사에 보존되고 있다고 전한다. 선문중흥주로 불리는 백파의 비는 선운사에, 부도는 구암사에 있다.

정호 문중은 백파를 중심으로 이전에는 주로 도술산 선운사와 백양사 운문암을 중심도량으로 삼았으나, 백파 이후로는 순창 영구산 구암사에서 주로 전통을 계승해 왔는데 그 전통이란 禪·講·律을 빠짐없이 두루 닦아온 것이었다. 따라서 백파문중은 선을 닦으면서 화엄을 이어왔으며, 계율도 엄정히 지녀왔던 것이다.

雪竇 有炯(1824~1889)은 정관에게 득도했으나, 법은 사형인 백암도원을 통해 이었다. 璿源 이씨로 아버지는 東馥 어머니는 박씨였다. 순조 24년 옥과현 옥전촌에서 태어나 지혜가 밝고 배우는 대로 익히는 것이 매우 뛰어났다. 1842년 3월에 백암산 정토사²¹⁾ 지장암에서 정관을 은사로 道巖을 계사로 머리를 깎았다. 조계산 침명강백 등에게서 참학하다가 1851년 봄 백암의 법을 이었다. 1870년에는 모악산 불갑사에서 주석하며 이 절을 중흥시켰다. 1889년 봄 양주 천마산에 주석하며 백파선사의 선문수경을 지지하는 「禪源溯流」를 지었으나 가을에 병을 얻어 구암

21) 정토사는 백양사의 옛 이름이다.

산 설유처명에게 강단을 맡기고 고종 26년 8월29일 목욕재계하고 입적하니, 세수 66이요, 계납 46이었다. 제자에는 茶輪·犀月·玩性·雪乳 등이 있다. 비는 전남 영광 불갑사에 있다.

정호는 설두에 대해 세 가지를 말했는데 첫째는 지혜가 탁월해 설과·백과의 뒤를 이어 조계산, 두륜산에 못지 않게 구암사의 전통과 명성을 이었다는 것, 둘째는 백과의 『선문수경』이 사람들을 위해 적절히 엮어 놓은 것인데, 혹 역량이 부족한 이들이 함부로 지껄이는 것을 상대로 대사가 그것을 바로 잡고자 「선원소류」를 지었다는 것, 셋째로는 만년에 노후를 무릅쓰고 불갑사를 중흥시킨 것이라고 「설두대사비명」에서 지적했다.²²⁾

정호는 이렇게 설과, 백과, 설두, 설유로 법을 이었으니 법계를 청허휴로부터 열거해보면,

淸虛休靜 → 鞭羊彦機 → 楓潭義謚 → 月潭雪霽 → 喚惺志安 → 虎岩體淨 → 雪坡常彦 → 退庵泰瑾 → 雪峰巨駟 → 白坡巨璇 → 道峰國粲 → 正觀快逸 → 白巖道圓 → 雪竇有炯 → 茶輪翼振 → 雪乳處明 → 映湖鼎鎬와 같다.²³⁾ 석가 이후 내려오던 법맥은 그 또한 하나의 쓸데없는 상으로 여긴 6조 혜능에 의해 사실상 열거하지 못할 상황이 되고 말았으나 굳이 따진다면 정호의 법맥은 세존의 79세, 임제의 41세, 태고 보우의 22세, 청허휴정의 16세, 설과의 10세, 백과 긍선의 7세손으로 우리나라 선사의 마지막 봉우리라고 할 수 있으니 정호의 선수행이 빚어낸 시문학이 형성된 배경을 가히 비추어 볼 만하다.

2. 鼎鎬詩의 形成 過程

위와 같이 정호의 시문학 형성 배경을 통하여 토대로 년보를 작성하고 주요작시의 창작 과정을 다음에서 살펴 총체적인 정호시의 형성과정

22) 映湖, 『石巔文鈔』, 「石林草·華嚴宗主雪竇堂大師碑銘」

23) 정호의 법맥은 정호의 孫上佐인 隱山스님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에 접근해 가고자 한다.

연도	나이	이력	주요작시	주요작문	비고
1870 (경오)	1	전북 완주군 초포면 조사 리에서 출생(8/18)			
1888 (무자)	19	태조암 금산에 득도(鼎鎬)			
1890 (경인)	21	운문암 환응에게 사교 마 침/조계산 경운 찾아감(8월)			최남선 출생
1891 (신묘)	22	금산과 1차 금강산행			구암사 화재 (3월)
1892 (임진)	23	경운에 대교과/구암사에 서 만암등 가르침			
1893 (계사)	24	금산 입적, 석왕사에서 신 계사, 건봉사, 명주사 참학			정인보 출생
1894 (갑오)	25	경운에 隨意科目 배움			
1895 (을미)	26	구암사에서 경담에 선문 염송 사사/구암사 설유에 게 사법(映湖/石顛)			승니입성 금지령해제 (3월)
1898 (무술)	29	지리산 대원사에서 구하 등 제접			
1899 (기해)	30	진주 대원사 진산, 강설			원흥사 기공
1900 (경자)	31	이후 1906까지 해인, 백양, 범어, 화엄, 석왕, 범주, 영 원사 등에서 학인 제접			백학명, 구암사 개강
1903 (계묘)	34				설유입적 (12/26)
1907 (정미)	38	2차 금강산행	觀九龍淵后 絶句		이완용 내각조직

연도	나이	이력	주요작시	주요작문	비 고
1908 (무신)	39	만해, 금파등과 유신논의/ 원종종무원 고등강사(3/6)		원종종무원 원흥사에 설 차(3/6)	만해귀국
1910 (경술)	41	이회광의 일본조동종종속 화기도에 반대			한일합방(8/22) 원종, 조동종 연합조인 (10/6)
1911 (신해)	42	한용운, 장금봉등과 임제종 설립, 송광사에 본원설립			사찰령 (6/3 공포 9/1 시행) 31본산 정함(7/8)
1912 (임자)	43	30본산주지회의원 고등불 교전문강당 강사/전주 교 동포교당 봉불식	조선불교월 보 집필	靈龜山雪乳堂 大師神錄(3월)	
1913 (계축)	44	해동불보 창간(11/20)/만해, 금봉과 불교종무원 창설			만해, 불교유신론
1914 (갑인)	45	불교고등강숙 숙사(4/1)/ 조선불교회 창설, 이사취임	王寶臺二絶 (3월)	精選繹門集說 발간(4/7)	
1915 (을묘)	46	선운사 방문(4월)	禪雲山上兜 率(4월)		중앙학림인가 (11/5) 30본산연합 사무소설치 (2/25 각황사)
1916 (병진)	47	중앙학림강사	和尹于堂重 陽韻(9월)	靈龜山新大藏 緣起	금봉입적(9월) 원불교창설 (3/26)
1917 (정사)	48		漢江之斗浦 寺詩會(3월)		만해, 정선강의 채근담발간

연도	나이	이력	주요작시	주요작문	비고
1918 (무오)	49	만해가 발간하는 '유심'에 기고	內藏山谷口 (3월)	白巖山巖穀堂 大師師略 (11월) 智異山大源寺 重建題記(3/3)/ 重刊禪學入門 后跋	만해, 중앙학림강사/ 제주 범정사 항일무장봉기 (10월)
1919 (기미)	50	한성임시정부대표(4/23) 중앙학림학장(5월)	宿釋王寺聞 鍾有感三絶 (6월)	曹溪山景鵬堂 大師師略續記 (8월)	
1920 (경신)	51	이회광의 임제종 태고과 설립에 반대(6월)/조선불 교회 발기인으로 참여/모 악산(가을), 석왕사 여행	金堤石鼎亭 自楓岳來訪 北林規試 (9월)	金山龍冥堂大 師師略(9/10)/ 雪嶺山釋王寺 雪城東樓重建 記(10/20)	조선불교 청년회 창립 (6/20)
1922 (임술)	53	조선불교총회 의장피선, 의사원 추대됨/중앙학림 휴교, 학장 물러남(5/29)/ 벽초, 위당과 함께 내장사 등 남녘 기행	訪李蘭谷草 堂覽碧初爲 堂南遊詩草 屬和內藏寺 韻(4월)		총무원과 교무원대립/ 명고축출사건
1923 (계해)	54	교무원의 일본임제종고문 추대비판함(11/18)/불교유 신회대표로 사찰령철폐요 구/3차 풍악기행(7/24-8/8) 춘원, 가람등과			
1924 (갑자)	55	제주관람(7월), 육당과 4차 풍악기행(9월5일)/남녘여 행(11/3)/설과 비문후 씌	逢權蕙山(沔 書痕2월/ 瀛州紀行 (7월)		총무원교무원 통합(4월)

연도	나이	이력	주요작시	주요작문	비 고
1925 (을축)	56	남녘여행계속(3/5)/묘향산 여행(8/17)	西園春初小 集1월8일金 惺堂家	輯草上人遺 稿序(3/3)/借 座東林柳畔序 (1/29)/廣德山 蓮臺庵重刊記 (12월)	춘곡 교회동 석전초상 그림 청담, 석전에 득도
1926 (병인)	57	백두산 압록강등 기행 (6/17)/개운사대원암개강 (10/26)	白頭游草	蓮潭大師第二 碑誌(5/5)	육당백팔만나 백용성등 취처육식급 지건백서제 출(5/19)/ 대처제도 합법화
1928 (무진)	59	불교전수학교 출강, 선문 염송 강의(5월)/대원강당 낙성(11/2)/전주 구암사포 교당에서 7일간 범화경 강설(1월)/승려대회 발기 인(11월)	蘭池莊上招 待同人共吟 (4월)	擎雲講白回臘 壽帖後跋/동 리산기실비/ 대원강원공덕 비송/벽과선 사비기음	청담운기등 현담졸업(11월) 불교전수학 교개교(4/30) 교장 만암
1929 (기사)	60	6명과 함께 교정에 1차 피선(1/3), 개운사서 취임 식(1/22)/대원암불교연구원 (3월)대원암2회졸업(10/22)	2월10일 葦 滄石汀諸老 來訪大圓蘭 若堪賦	진목조사무봉 담송/용문산 운필암중건기 한미산흥국사 만일회비기/ 선암사광주포 교당대법전상 량문	조선불교학 인연맹결성 학명입적(3/27) 환응입적(4/7)
1930 (경오)	61	회갑/중앙불전승격(4/7)교 장 만암	春分夜會老 石心齋堪賦2 월		육당, '조선불교' 발행(8/1)

연도	나이	이력	주요작시	주요작문	비고
1940 (경진)	71	구암사로 내려감(4월)/불 갑사, 대흥사, 관음사 여 행 (여름)		수도신봉은사/ 개장장본금강 경/중수구암 사/두륜산초 의/대흥사심 진교/조계산 경운당/송포 연상인/금량 각중건기	창씨개명 제 도(2월)/ 중앙불전 혜 화 전문으로 개명(7월)
1941 (신사)	72			수락신흥국사	조계종종정 에 한암/진진 응입적/태평 양전쟁발발
1942 (임오)	73	단양 도담삼봉여행(姜載 雲,李雲惺,楊聽雨와)/환응 비문 짓고 오세창 씀.5월 에 선운사에 세움			
1943 (계미)	74	석림수필(6/5)탈고, 1962 간행한 석전문초에 삼입/ 구암사에서 안질치료		도솔산도솔암 대웅전상량문 (4월)/ 황매산청강사 병건비기	
1945 (을유)	76	해방후 초대교정 3차 피 선/내장사로 옮김		태고사법폐지	
1948 (무자)	79	세수 79,법납 61세로 열반 (2/29)			석전문초 발간(1962)

위의 도표와 같이 정호시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니 世壽 40~50代에 주
로 시문학이 형성됨을 알 수 있었고 碑文 및 上樑文 등은 50代 이후에
왕성한 활동이 있었다.

Ⅲ. 鼎鎬詩의 分析

1. 形式的 分析

정호시를 먼저 형식적 분류를 하기 위해 살펴보면 『石顛詩鈔』上·下卷에 작자가 일생동안 禪의 여가에 지은 시를 쓰여진 년대순으로 수록되어져 있다. 상·하권에 실려 있는 시는 모두 603首인데 그중 6首는 다른 사람의 시²⁴⁾로 실제 정호의 작품은 597首이다. 그리고 상권에 東州崔南善의 「序」와 薇蘇山人 鄭寅普가 撰한 「石顛上人小傳」이 실려 있고 하권에 정호의 自敍 「石顛詩鈔後自敍」가 있다. 「石顛詩鈔後自敍」를 7言古詩로 보아 모두 『石顛詩鈔』上·下卷에 실려 있는 鼎鎬禪師의 작품은 598首가 된다.

鼎鎬詩를 作詩 形式上 分析을 하면 다음과 같다.

絶句	五言絶句 11首	304수
	五言律詩 293首	
律詩	七言絶句 30首	253수
	七言律詩 223首	
排律	五言排律 4首	12수
	七言排律 8首	
古詩	五言古詩 21首	23수 (「石顛詩鈔後自敍」포함 24수)
	七言古詩 2首	
短長句	5首	5수

이러한 정호시의 전반적인 내용적 분석을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4) 『石顛詩鈔·上』, 「和尹于堂重陽韻」原韻·『石顛詩鈔·上』, 「李蘭谷詩」·『石顛詩鈔·下』, 「蘭谷詩」·『石顛詩鈔·下』, 「蕙山詩」·『石顛詩鈔·下』, 「內藏白羊八勝詩」·『石顛詩鈔·下』, 「王妙雲原韻」이다.

2. 內容的 分析

정호는 글은 碧下 趙周昇(1854~?)에게 배우고 秋琴 姜瑋(1820~1884)를 익혔다고 한다.

趙周昇은 김제사람으로 전주에 살았으며 서화에도 뛰어났다. 그는 특히 소동파를 좋아해 정호선사에게 蘇東坡의 「赤壁賦」를 써줬는데 출가 이후에도 오랜 동안 간직했었다고 한다.²⁵⁾

姜瑋는 진주출신으로 古權子라고도 불렸으며 당시 조선시단을 주도한 인물이었다. 황성일보 기사를 지낸 애국시인 추금은 梅泉 黃玟(1855~1910)·滄江 金澤榮(1850~1927)·寧齋 李建昌(1852~1898)과 더불어 四大家로 불렸다.

정호선사가 禪家詩의 마지막 봉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내용에 불교의 심오한 정신적 경지를 담고 있는데다 시의 수사적 특징으로 중국의 당송시를 섭렵하여 자유자재한 用事를 두루 한 경륜이 맞물려 빚어낸 작품들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선시가 선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시라 하여 단순히 형이상학적인 哲理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선적인 행위도 나타난다. 따라서 그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사나 그들이 대하는 주위의 모든 자연현상이 모두 선적인 투시와 관조를 통하여 시속에 용해되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자연은 선취를 나타내는 은유, 상징 또는 선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소재로 선시에 수용된다. 이렇게 심취한 선에 관한 직접적인 표현 없이 禪味를 느끼게 해주는 시로서 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靜慮의 고요함이나, 妙悟의 형상, 해탈의 경계가 시어 속에 함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선취시는 선사시, 선리시에서 시적인 면이 더욱 발전하여 脫俗忘機를 거쳐 入神의 경지에 이른 詩界라 할 수 있다.²⁶⁾

25) 정호선사의 법손인 隱山스님으로부터 필자가 口傳된 일화를 들었다. 은산스님은 미당 서정수 선생으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26) 柳晟俊, 「寒山の 參禪詩」, 『中國文學』 제8집, p.7.

정호에게 있어서 자연은 자신과 동체를 이루며 物我一體와 主客一如, 이른바 眞如一心으로 詩化된다. 금강산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곳 歇惺樓를 읊은 시이다.

非仙非佛又非天	신선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며 조물주도 아닌데
崑嶂皚皚啣紫烟	바위산 희끗희끗 보라 빛 안개 거느렸구나
誰道登斯閑閣筆	누가 말했던가, 여기서 붓을 들지 말라고
通身宛爾入詩禪	온몸이 완연히 시와 선의 경지에 들고 말았네. ²⁷⁾

李白의 ‘笑而不答心自閑’²⁸⁾이 속인의 하찮은 질문에 自足하렘이라면, 石顛의 시는 온전히 ‘別有天地非人間’의 仙界에서 그대로 ‘詩禪一揆’의 禪趣에 陷沒되어, 남들은 그 ‘圓融無碍한 仙의 맛을 붓으로 써낼 수가 없다’했지만 정호는 禪詩로 써내고 말았다.

다음의 「赤壁夜游」는 趙周昇이 써준 소동파의 「적벽부」를 늘 애송하고 기리며 지은 시가 분명하다.

明沙丹壁月昇東	흰 모래 적벽강 동녘에 솟은 달
銀海光涵微拂風	은빛 바다에 몸 맡기고 미풍 따라 일렁이네
亂峰雲逗氣生曙	구름 머문 못 봉우리 기운을 차리려나
遠艇燈疎色不紅	점점 멀어져 희미해진 배의 붉은 불빛
沉酣白墮衿猶冷	즐거움에 흠뻑 빠져 추위조차 잊었네
朗吟蘇詞夜正中	소선의 적벽부 읊노라니 밤은 정히 깊었네
露宿滄洲清一夢	창주에 머물며 맑은 꿈을 꾸었지
可忘名士照懷同	명사는 잊더라도 느낌만은 다름없어라. ²⁹⁾

소동파가 적벽부를 읊었던 중국의 적벽과 이름이 같은 적벽강에서 밤늦도록 적벽부를 읊다보니 자신이 동파가 되어버렸다. 동파는 잊더라도

27) 映湖, 『石顛詩鈔·上』, 「歇惺樓」

28) 李白, 「山中問答」

29) 映湖, 『石顛詩鈔·下』, 「赤壁夜游」

느낌만은 그와 다름없다는 결구에서 호가 누리는 禪趣를 느낌과 동시에 그가 동파보다 동파의 禪趣를 동경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 시는 정호의 詩禪一如한 경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雲晴歷歷七山開	구름 걷히자 역력하게 열리는 칠산
更有鴉翻落月堆	기우는 달빛 따라 갈가마귀 비껴 나네
漁艇那知禪活計	고깃배도 선삼매에 들어갈 줄 아나 봐
能忘身世任風廻	인생사 모두 잊고 바람결에 돌아오네. ³⁰⁾

밤바다 달빛에 파도 따라 출렁이며 돌아오는 한 척의 고기 배와 어옹들의 모습에서도 정호는 그대로 禪味를 느끼고 있다. 마치 ‘萬法歸一 歸何處’의 話頭를 참구라도 하듯, 고깃배도 禪三昧에 들고 있다고 말한다.

이상으로 정호의 시문학의 내용적 분석을 통해 볼때 중국의 唐宋詩를 흠모하여 정호는 바로 禪定의 詩趣, 詩禪一如의 경지로 빚어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V. 鼎鎬詩의 作品 內容

1. 禪家詩

禪家詩는 선 수행자가 禪의 오묘한 이치나, 그 수행방법을 시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시인이 佛家の 禪理나 教理를 시로 승화한 것을 선시라 한다고 하였다.³¹⁾ 선시의 특징은 不立文字라고 하는 禪旨를 설명한 것이 되므로, 선가에서 말하는 ‘知解卽病根’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불립문자가 문자에 집착하지 말라는 不着文字의 뜻이지, 不用文字는 아니라고 해석하는 관점도 있으니, 문자로 말미암은 장애를 일으키

30) 映湖, 『石顛詩鈔·上』, 『佛岬 海佛庵 雜絕』 其三

31) 李鍾燦, 『高麗禪詩 研究』, 한양대학교원 박사학위 논문, p.81.

지 않고 그 妙理를 전달할 수 있다면, 훌륭한 한 편의 시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호가 선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禪旨가 범상치 않았음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정호는 오도송을 남기지 않았다. 깨달음을 얻지 못한 탓인지는 모르나 설령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아마 오도송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 또한 하나의 相이라고 여겼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모든 시가 바로 선시이며 오도송이라고 볼 수 있다.

선의 이치를 흠뻑 담고 있는 달관의 경지를 정호는 오히려 선리시답지 않은 선리시를 통해 선의 이치를 보여 준다.

楓林紅盡曉山青	붉은 단풍 다 지고 새벽 산은 푸른데
琳殿新開似畫屏	새로 열리는 법당들 그림 병풍 같아
千佛光回乾淨地	천불의 광명은 깨끗한 땅에 돌아오고
雙碑影倒激湍汀	두 비석의 그림자 세찬 여울에 엎어져
森然崑笏雪初見	늘어선 바위틈에는 눈도 흘깃 보이고
聒聒風湖松外聽	윙윙 바람소리 소나무 밖에 들리네
借得吾行及時早	어쩌다 내친걸음 그 철이 이른데도
黃華明月可中庭	국화꽃 밝은 달이 뜰 안에 가득하네. ³²⁾

속세를 벗어나 홀로 선정에 잠긴 詩中有畫요, 畫中有詩다. 禪理를 담은 情景의 일치는 직관에 의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情과 景은 둘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분리될 수 없다. 시를 妙하게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양자를 자연스럽게 결합시킬 수 있어 가장자리를 남기지 않는다. 정교한 시는 景가운데 情을 나타내고, 情가운데 景을 나타낼 수 있다.³³⁾ 여기의 畫는 景이요, 詩가 情임은 물론이니 결국 시는 觸物陳情이다.

32) 映湖, 『石顛詩鈔·上』, 『寶蓋山 深源寺』

33) 『中國文學批評史』, 文史哲出版社, 民國71. “情景名爲二 而實不可離 神於詩者 妙合無垠 巧者則有情中景 景中情”

이처럼 시인의 직관이 어떤 사물에 비추었을 때, 그것은 단순히 형식적 물질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객관화되고 추상화된 사물이 된다. 늦가을 새벽 산사의 풍경이니, 날이 밝아오며 드러나는 산사의 범당들은 하나하나 그림 아닌 것이 없다. 밝아오는 여명 속에 물에 비친 두 개의 비석, 바위틈의 눈, 바람소리, 그리고 뜰 안에 가득한 국화꽃과 밝은 달은 들리고 보여지는 그대로가 모자람이 없는 禪이다. 하늘의 이치는 無私한 달빛과 같아 신선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초연히 마음을 다스린다면 그 곳이 해탈의 경지가 아니겠는가 한다.

다음은 백양산 四勝 가운데 운문암의 저녁 종을 읊은 시이다.

風曳噌吰萬竅鳴	바람결에 쇠북소리 온 골짜기 울리는데
葉飛秀石露華明	흘나는 낙엽 빼어난 돌 서리 이슬도 영롱하군
闍梨頗記眞空否	큰스님 아시려나 모르시려나, 진공의 참 뜻을
朗吟梵唄遲月生	범패 읊조리자 새벽달 솟아오네. ³⁴⁾

울리는 쇠북소리와 흘나는 낙엽, 빼어난 돌 서리의 영롱한 이슬은 속인에겐 전혀 무관한 별상일 뿐이다. 또 범패를 읊는 일과 달이 뜨는 일도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진공의 세계에서는 이 또한 별개의 일이 아닌 緣起이자, 총상이다. 종소리는 그 소식을 전해주고, 달은 그 이치를 현현해 주는 이른바 장엄한 자연의 경건함. 바로 그것임을 시의는 함축하고 있다. 물론 큰스님이야 모를 까닭이 없지만, 그것이 시문학의 뉘앙스가 아니겠는가? 선의 경지는 이렇게 분별과 차별을 떠나며, 유행과 무정을 하나로 융섭하는 일원론 속에서 만유일체, 불이범문으로 총상화한다. 진솔한 시의 경지 역시 다르지 않다.

다음의 「神興峽」은 산골짜기의 모습을 노래했지만 어렵잖이 선리를 읽게 한다.

34) 映湖, 『石巔詩鈔·下』, 「雲門暮鍾」

山深日暖恰春溪 깊은 산 따뜻한 햇빛 봄 계곡 같은데
 行到神興古塔西 발걸음 신흥에 이르니 옛 탑 서편이라
 谷鳥向人說何法 골짜기 새는 사람에게 무슨 법 설하나
 村烟灑水雪殘堤 시골연기 그물 처진 물 눈 남은 제방이로다.³⁵⁾

부처가 있고 구함이 있는 마음에 어찌 부처가 찾아오겠는가? 선을 말하고 불교를 말할 때 이미 불교와는 멀어지고 마는 법이다. 선에서 말하는 절대는 상대계에 대립하는 상대적 절대가 아니다. 상대와 절대까지도 끊어진 절대, 거기에서는 굳이 선의 내음을 풍길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道法自然이랬던가? 저 무구한 佛國土의 시골연기·그물이 처있는 물·눈 남은 제방은 그대로 자연한 절서이자, 법이며 선의 이치인 것이다.

이렇듯 정호 자신은 선승으로 詩를 썼기 때문에 정호가 추구하는 詩는 선과 구별되지 않고, 자연과 합일되는 不二의 세계에 있으며, 修禪三昧에 잠기어 思無邪의 詩境에 빠져 悟道를 통한 자기완성과 중생을 향한 보살행의 格律이 드러나 있어 선수행의 결과로서 지어진 정호선사의 禪家詩를 볼 수 있다.

2. 詠物詩

‘영물’이란 용어는 中國 鍾嶸의 『詩品』³⁶⁾에 처음 보인다. 그 이후로 이것은 사물을 吟詠하는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다. 영물시는 托物伸意로, 시인이 物事를 통하여 자신의 詩心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 될 수 있다. 따라서 영물시는 작자가 담담하게 物事に 충실하여 그리는 것이다.

이런 시들은 모두 물사를 그대로 충실히 묘사하면서 物로부터 받는 작자의 감흥을 나타낼 뿐 아니라, 시인의 감정으로 物事を 재구하여 창조할 수도 있다.³⁷⁾

35) 映湖, 『石顛詩鈔·上』, 『神興峽』

36) 鍾嶸, 『詩品』 “許瑤之 長於短句詠物”

37) 이종건, 『朝鮮前期 漢詩批評』, 새문사, 1992. 참조.

정호선사의 여러 영물시 중에서도 소나무 사랑은 특히 눈길을 끈다. 선사가 가장 사랑한 영물은 소나무였다.

영물에 관한 그의 시 10편중 소나무와 관련한 것이 4편이나 된다.

그밖에 작약화, 연꽃, 국화 등을 다루었고 특이한 것은 ‘죽순국’을 두고 시를 읊었다는 점이다. 먼저 孤松을 읊은 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特立孤青者伊誰	특별히 서서 외로이 푸른 것 저 누구인가?
淨如琉璃萬山雪	깨끗하기는 유리궁의 만년설과 같네
高柳何堪終夕風	높은 버들 어찌 밤새도록 부는 바람 견딜까?
霜楓已過重陽節	서리 맞은 단풍은 이미 중양을 지났네
庭畔一孤松	뜰락의 한그루 소나무
移自北城截	북성으로부터 옮겨 심었네
藏而青山色	너는 청산의 색을 머금었고
濯而流水潔	너는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기웠네
不嫻種樹經	나무 심는 법에 익숙치 못하여
封培多決裂	분돈위 심음에 잘못 많더라
葉如數片雲	나뭇잎새 우거져 주름처럼 몽실대고
枝如三寸鐵	가지는 굳은 쇠와 같네
天寒水山積	날이 추워 얼음이 산처럼 쌓이면
群動不敢出	모든 동물 감히 나오지 못하네
獨自冒繁霜	홀로 스스로 번거로운 서리를 무릅쓰고
皚皚鶴垂髮	흰 학이 수염을 드리운 것 같네
恥入紅塵勢孤危	홍진 들어감 부끄러 형세 외롭고 위태로워
不令綠陰徧丘蛭	녹음으로 하여금 언덕엔 그늘주지 않았지
多爾天性清而韻	그대 천성 맑은 운치 아름답게 여기나니
半夜潮音似江浙 ³⁸⁾	깊은 밤 술 바람소리 강물과 같네
翳翳 ³⁹⁾ 人夫南牕前	더부룩한 그림자 남쪽창 앞에 들어오니
不被樵牧天而札	나무꾼들 한테 베어서 죽지 않으리

38) 江浙은 양자강과 절강성을 비유한 말이다.

39) 陶淵明, 「歸去來辭」 “雲無心以出岫 鳥倦飛而知還 景翳翳以將入 撫孤松而盤桓 歸去來兮 請息交以絕遊”

落落迥夫櫟社隅	낙락장송 역사 ⁴⁰⁾ 의 모퉁이 멀어서
不受匠石睨而疾	목수들이 훑어보고 미워함을 받지 않으리
色色總空香亦然	모든 것이 공간데 향기 또한 공이라
桃李園中何蕭瑟	복사 오얏 꽃밭이 어찌 쓸쓸하지 않을까?
鬱勃梅花凌雲筠	무성한 매화꽃이 대나무를 업신여기듯
歲暮音信江南絕	해 저물었는데 소식은 강남에서 끊겼네
會待爾作老龍鱗	마침 너를 기다려 늙은 용의 비늘 만드니
層層架屋可盤屈	층층히 집을 얹어 줄기 서리고 굽었네
白石山翁臥其間	백석산의 늙으니 그 사이에 누워서
撫琴長嘯對明月	거문고에 휘파람 불며 밝은 달 대하네. ⁴¹⁾

『석전시초』 가운데 유일하게 長短句를 섞어 엮은 長詩이다. 소나무는 여기서 곧 정호 자신을 의미하고 있음을 헤아리기 어렵지 않다. 작품의 전반부에서는 소나무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홀로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유리궁의 만년설처럼 깨끗하다고 하며 버들도 봄이 지나면 바람 견디지 못하고 단풍도 서리 내리면 모습을 바꾸지만 낙락장송은 푸름을 감추어 변치 않는 모습을 지키고 있다고 하였다.

시의 중반부에서는 소나무의 性情을 읊으며 紅塵에 들어가기 부끄러워 그들도 함부로 드리우지 않는다 했으니 군자가 베틀하는 함부로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와 같은 고고함이다. 깊은 밤 솔바람 소리는 양자강의 물결 소리 같다고 하며 陶淵明의 「歸去來辭」를 읊조리는 듯하다. 또한 소나무는 목수들에게 베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시의 후반부에서는 모든 것이 공간하다고 하였으니 소나무의 절개도 또한 공간이니 眞空妙有의 경지이다. 봄의 아름다운 꽃밭도 공간이요, 강남의 매화 소식이 아직 없는 것이 마치 매화가 대나무를 업신여겨서 인듯하다고 한 정호선사의 경지는 추운 날 낙락장송의 孤松에 자신이 몰록 入禪의 沒自

40) 『莊子』, 「人間世」 “匠石之齊 至於曲轅 見櫟社樹 其大蔽數千牛 之百圍 其高臨山十仞而後有枝 其可以舟者旁十數 觀者如市 匠伯不顧”

41) 映湖, 『石顛詩鈔·上』, 「詠孤松」

我로 소나무와 物我一體를 읊조리고 있다. 늙은 용비늘 같은 老松의 그늘 아래 白石山의 신령스런 산신은 거문고 타며 휘파람 불며 밝은 달 대한다 하였으니 이 작품 구구절절이 정호선사가 평생 지켜온 戒·定·慧 三學의 선사로서의 自我象과 그리고 시인으로서의 영물의 감회가 절로 느껴진다.

한편 달빛 흐르는 뜨락의 소나무를 읊은 「詠月下庭松十絶」은 정호가 소나무를 얼마나 좋아하고 있었는지 알게 한다. 其三首를 보면,

顛石同君過十冬	석전은 그대와 함께 10년을 지내며
倦尋梅竹意憧憧	싫증에 매화 대나무 종종 그리워 했지
歲寒深戶誰知己	추운 겨울 방안에서 누가 친구이겠는가?
聊望靑蒼慰病慵	푸르름 병든 이 몸에 위로되길 바라네. ⁴²⁾

정호선사가 소나무와 10여년을 함께 수행의 도반으로 지내며 때로는 梅·竹를 완상하기도 하였지만 추운 겨울 눈 덮인 山中에서 누가 나의知音이 되어 줄 것인가? 반문해 본다. 사시사철 변치 않는 푸르름이 百年之客 禪師의 空한 肉身에 일침을 가하는 듯하다. 바라보기만 해도 병든 몸이 나올 듯 했던 소나무, 정호는 언제나 그 소나무와 함께 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詠月下庭松十絶」에서 其十首를 보면,

一夢功名似逝水	한바탕 꿈같은 공명은 흘러 가는 물과 같으니
泰山漫憶大夫封 ⁴³⁾	태산에서 부질없이 대부에 봉한 것 생각하네
淸風拂拂共雲碧	맑은 바람은 떨치고 떨쳐 구름과 함께 푸르니
儻有姮娥深照棕	혹여 항아가 있음 깊이 즐기는 것을 비추리라 ⁴⁴⁾

인간의 부귀공명이란 뜬구름 흘러가는 물과 같다. 진시황이 태산에 올라 하늘에 제사를 지내려 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가까운 곳

42) 映湖, 『石顛詩鈔·下』, 「詠月下庭松」其三

43) 秦始皇이 소나무를 大夫로 封했다는 大夫松을 가리키는 말이다.

44) 映湖, 『石顛詩鈔·下』, 「詠月下庭松」其十

에 큰 소나무가 있어 그곳에서 비를 피하게 되어 그 소나무한테 大夫 벼슬을 내렸다 하는 고사가 있는데 大夫의 벼슬에 봉해진들 부질없는 일이다. 혹여 달님이 내가 깊이 소나무의 푸름을 사랑함을 알아줄까 하는 마음을 펼치고 있다.

다음은 제주를 다녀 나오는 길에 해남 대흥사에 들러 無染池 작은 연못에 연꽃이 활짝 핀 것을 보고 지은 시이다.

臨門遂怪暗香來	사찰에 이르자 풍겨오는 향기 괴이하게 여겼더니
最是紅渠恰欲開	일찍이 붉은 연꽃 흡사 피고자 함이었어라
難道清真通妙法	맑고 참되어 묘법에 통하는 것 말하기 어려워
卽看丰采絕塵埃	곧바로 아름다운 모습 세속을 끊는 것을 보겠네. ⁴⁵⁾

연꽃은 더러운 곳에서도 항상 청정한 處染常淨을 뜻하는 불교의 상징 꽃이다. 연꽃이 바로 묘법과 통한다는 말은 北宋의 周濂溪가 연꽃을 군자의 꽃이라며 지었던 「愛蓮說」을 연상케 한다. 연꽃은 더러운 물에 뿌리를 박고 피어서도 물들지 않고 八正道의 수행의 덕목을 가추고 있으니 정호선사의 수행의 벗이 됨은 당연하리라. 이렇게 정호의 영물시에 는 대부분 군자를 비유한 소나무 매화 연꽃이 대부분이니 물건에 자신을 의탁하여 읊어낸 경지를 엿볼 수 있었다.

V. 鼎鎬詩의 位相 및 整理

한 작가의 사상적인 바탕이 어떤 支柱에 의하여 세워지고 있는가를 밝히는 문제는 作家意識의 源泉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호의 시문학을 빚어낸 시의식은 어떠한 양태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는 일은 정호 시 위상을 밝히는 이해의 첩경이다.

정호 문학, 특히 시문학에 대한 견해는 『石顛文鈔』·『石顛詩鈔』 곳곳

45) 映湖, 『石顛詩鈔·上』, 「出瀛至大興寺門外小池蓮花盛開」

에서 산견된다. 그는 “문장이란 도를 담는 그릇 文以載道”이라는 전통적 道德主義 문학관을 견지했으며, “시는 문예의 소품으로서 우주간의 청숙한 기운이 흘러 넘쳐 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⁴⁶⁾ 시와 선에 대해 정호는 “지극한 도는 말이 필요 없지만, 글에 의하지 않고는 표현하기 어려우니 부득이 붓을 들어 그것을 이르거니와, 출세자의 그것을 禪偈, 재세자의 그것을 詩歌라 한다.”고 했다. 이른바 不立文字나 悟道の 至境을 문자 아니고서는 전할 수 없으니 불가불 언설에 의뢰함, 그것이 바로 禪家の 禪偈라 함이 그것이다. 그리고 詩禪一揆, 즉 “선과 시는 上乘에 다 다르면 경지가 하나로 통한다.”고 하였으니, 이 역시 嚴羽의 神韻說의 원용이요, 정호는 자신의 이 같은 시론을 초의선사의 碑後에서 새겨 초의 선사의 선적 시세계를 아로새긴 바 있다.⁴⁷⁾

정호는 간혹 孫過庭의 書譜에서 말한 것처럼 선과 시는 마치 바람난 말과 소처럼 서로 가까이할 수 없는 것인데, 이를 하나라 말한다면 미친 이가 아니면 어리석은 이라고 말할 것이나, 그들이 시인의 끝에 있어 알지 못해 하는 말이니 어찌 하겠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南宋 嚴滄浪의 시화에 나오는 논지인 ‘盛唐詩는 대승선과 같고 中唐·晚唐 以下는 소승선과 같으며, 宋代에 미쳐서는 논할 것이 없다.’고 한 것은 단지 三唐을 기준한 것이라고 전제한 정호는 “唐詩는 선과 같다.”는 한정적 단정은 마치 가죽신 위로 가려운 곳을 긁는 것처럼 어설픈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엄창량은 禪道를 모르는 위인이었다고 지적한 정호는 또한 王士禎의 「捨筏登岸」으로 시와 선의 관계를 말하기도 한다. 즉 ‘뗏목을 버리고 언덕에 오름’이니 그 경지는 시와 선이 하나로 통하고 있다고 하였다.⁴⁸⁾

정호는 그러면서도 “문장이란 세간의 근심덩어리임을 알지 못하고 많은 말을 재잘거리니, 한낱 웃음만 나올 뿐”이라고 해 문장의 허물이 또한

46) 映湖, 『石顛文鈔』, 「石林隨筆·一種詩式半島體製」

47) 映湖, 『石顛文鈔』, 「石林草·頭輪山草衣禪師塔銘記陰」

48) 嚴羽, 『滄浪詩話』, “捨筏登岸 禪家以爲悟境 詩家以爲化境 詩禪一致 等無差別”

없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⁴⁹⁾ 정호는 선가의 시에 대해 『石顛詩鈔』 「序」에서 마조·석두의 선시로부터 南朝의 湯休·推敲·浪仙·宋代 九僧·서악 고승 姜古歡·초엄·초의를 족으나, 그 후로는 선풍이 식어 시도 따라 불품이 없어졌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輯草 上人 遺稿序」⁵⁰⁾에서 정호는 “고금의 선가의 작품이 있기는 하나, 오백 년간 시로서 이름을 떨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으니 대가를 쉽게 볼 수 있겠느냐”고 되묻고 있다. 아울러 “고금의 선가 작품을 한마디로 평한다면 시는 더러 볼 것이 있으나 문은 부족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까닭은 깊은 산에 묻혀 천하의 학문에 어두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교학과 시문이 함께 쇠락해 오백년간 글이나 시를 하는 이가 불과 몇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⁵¹⁾ 더욱이 선지를 닦은 이가 매우 적은데다 선시를 겸해 경지에 이른 분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며 그 가운데 한사람이 초의라고 아는 이들은 말한다⁵²⁾고 하였다.⁵²⁾ 특히 정호는 선가시의 역사를 이렇게 밝힌다.

선가시문은 삼당 때 가장 왕성했으나 그 후로 침체일로를 걸어 杼山·浪仙·西岳·白蓮 등이 겨우 명맥을 유지해 李杜韓白에 손색이 없었다. 송에 들어 아홉 명의 시승이 배출되고 남북조시대에 鑄津·石門·溫陵·徑山 등이 歐蘇朱陸과 위아래를 다투며 문단을 이어갔다. 元나라때는 中峰·八思, 明시대에는 雲棲·憨山·藕益·一雨, 淸初에는 유불이 습합되며 八大山人과 藥地和尚이 가장 빼어났다.⁵³⁾

고 하였다. 선시를 서구에 소개한 스즈키 다이세쓰는 일찍이 “예술가의 세계는 하나의 자유 창조적 경지이다. 이러한 세계는 사물에서 직접

49) 映湖, 『石顛文鈔』, 「石林隨筆·鼎坐詩班各祖三教」

50) 映湖, 『石顛文鈔』, 「石林草」

51) 映湖, 『石顛文鈔』, 「石林草·輯草 上人 遺稿序」

52) 映湖, 『石顛文鈔』, 「石林草·頭輪山草衣禪師塔銘記陰」

53) 映湖, 『石顛文鈔』, 「石林草·輯草 上人 遺稿序」

적으로 일어나는 직관만으로서의 감각을 산출하게 되는데, 감각이나 인지적 장애는 영향 받을 수 없으며, 무형상과 무성음 중으로부터 형상을 창조하게 된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말한다고 하면 예술가의 세계와 선의 세계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선과 예술의 관계를 말했다.⁵⁴⁾ 정호의 시선일규와 같은 틀의 논지라 하겠다.

정호는 『석전문초』 가운데 비평 모음집이라 할 수 있는 「석림수필」에 “사문 석전이 근대 선시의 경지를 따라서 느낀 대로 적었기 때문”⁵⁵⁾이라며 이렇게 설명한다.

거울과 거울이 서로 보여주고 구슬과 구슬이 서로 비취 주인과 객이 거듭 바뀌어 서로 아무런 결림이 없다. 이러한 것이 수필의 체제라면 굳이 고문 어록과 다르다거나 시화에 부합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에 구애 받을 바 무엇인가. 마치 한 고치의 실이 고치가 다하면 모든 것이 끝나듯 그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바를 줄줄이 써 내려 감으로 만족하리라.⁵⁶⁾

고 하였다. 정호는 또한 莊子의 말을 빌려 天籟와 人籟에 부합해야만 비로소 詩道가 원만해진다고 했다. 천뢰는 신비로운 운율이 천연적으로 흘러 넘쳐 마치 물 속에 잠긴 달이나, 거울에 비치는 형상과 같은 것을, 인뢰는 정밀함과 공교함을 사람의 힘으로 다하여 마치 태산에 오르는 것과 같음을 말하는 것으로 전자는 李靑蓮·소동파, 후자는 황산곡·杜少陵을 대표적 인물로 거론했다.⁵⁷⁾ 그러나 천뢰의 신비로운 운율에만 치우치거나 인뢰의 精工에만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山東 王阮亭·江南 袁簡齋를 명가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으나, 각각 그 부류에 속하는 예의 인물로 들었다. 천뢰와 인뢰를 天才와 人功의 대상에 빗대어 규정할 수 있다고 한 정호는 한퇴지의 문장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54) 崔炳植, 『水墨의 사상과 역사』, 東文選, 2008. 재인용.

55) 映湖, 『石顛文鈔』, 「石林隨筆·有引」

56) 映湖, 『石顛文鈔』, 「石林隨筆·有引」

57) 映湖, 『石顛文鈔』, 「石林隨筆·天籟叶人籟詩道方圓」

듣지 못하는 것이라든지, 5세 신동으로 불린 매월당 김시습을 문장을 열심히 다루지 못한 경우로 꼽았다. 따라서 정호는 “시의 큰 규칙은 神韻의 천리를 창하여 精工의 인뢰에 맞춘 이후에야 바야흐로 원만해지는 요결이 되지 않겠느냐”⁵⁸⁾고 말하고 있다. 특히 정호는 자신의 개성이나 감정을 떠나 남을 그대로 모방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는 암두선사가 설봉에게 “남의 문을 따라 들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보배를 등진 것”⁵⁹⁾이라고 일깨워 준 말을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정호선사는 ‘詩禪一揆’의 경지를 詩道로 승화시켜 한국 불가시사의 위상을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정호선사의 시세계를 살펴 정호시의 형성배경 및 과정을 살펴보았고 정호시를 형식적 내용적 분석을 통하여 작품의 특징을 찾아보니 당송시를 흠모하여 ‘詩禪一揆’의 경지를 시로 승화시켰음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작품의 내용에서는 본고에서는 지면상 선가시와 영물시를 범위로 제한하여 살펴보았다. 작품내용을 통하여 鼎鎬禪師의 韓國佛家 詩史에서 마지막 禪詩僧의 位相을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고의 남은 과제로는 정호선사의 작품의 내용에 있어서 山水詩·自然詩·紀行詩 등에 대한 고찰은 후고로 미룬다.

<參考 文獻>

- 映 湖, 『石顛文鈔』 影印本, 東明社, 昭和 15年.
 ———, 『石顛詩鈔』 影印本, 法寶院, 1961.
 艸 衣, 『東茶頌』, 韓國佛教全書 編纂委員會 編, 1989.
 ———, 『禪門四辨漫語』, 韓國佛教全書 編纂委員會編, 1989.
 ———, 『一枝庵文集』, 韓國佛教全書 編纂委員會 編, 1989.
 ———, 『一枝庵詩藁』 一枝庵藏本, 寶蓮閣, 1982.

58) 映湖, 『石顛文鈔』, 「石林隨筆·天籟叶人籟詩道方圓」

59) 映湖, 『石顛文鈔』, 「石林隨筆·天籟叶人籟詩道方圓」

- , 『一枝庵詩藁』 葦滄文庫本.
- , 『震默祖師遺蹟攷』, 韓國佛教全書 編纂委員會 編, 1989.
- , 『艸衣詩藁』 影印本, 文星堂, 1977.
- , 『草衣集』 影印本, 大東文化研究院編, 寶蓮閣, 1975.
- 韓國佛教全書 編纂委員會 編, 『韓國佛教全書』, 東國大學校 出版部, 1989.
- 杜松栢, 『禪學與唐宋詩學』, 黎明文化事業公司, 民國65.
- , 『禪與詩』, 弘道書局, 民國65.
- , 『禪詩三百首』, 黎明文化事業公司, 民國70.
- 柳田聖山, 『禪語錄』, 中央公論社, 昭和49.
- 陳 香, 『禪詩六百首』, 民國74.
- 金麗七, 「艸衣 意恂의 思想」, 『서울교대논문집』 12, 1979.
- 金美善, 「艸衣 張意恂 詩의 研究」, 성신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 「禪詩의 受容美學」, 청주대 교육문제연구소, 2002.
- , 『艸衣禪師의 禪茶詩』, 이화출판사, 2004.
- , 「映湖禪師의 禪詩」, 中國 『聊城大學學報』 NO.6, 2005.
- , 「韓國의 中國禪詩 受容美學」, 中國 『齊魯學刊』 2006. 7.
- 金相鉉, 「韓國의 茶道觀」, 『史學誌』 제10집, 檀國大學校, 1976.
- 金相洪, 「茶山의 未公開 繪畫資料集」, 문학사상, 1976.
- 權奇棕, 「高麗後期の 禪思想 研究」, 동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 權奇浩, 「禪詩 研究」, 부산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柳晟俊, 「寒山의 參禪詩」, 『中國文學』 제8집.
- 徐珪郃, 「朝鮮前期 禪家文學의 研究」,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이중건, 『朝鮮前期 漢詩批評』, 새문사, 1992.
- 李鍾燦, 「高麗禪詩 研究」, 한양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印權煥, 「高麗時代 佛教詩의 研究」,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2.
- 崔炳植, 『水墨의 사상과 역사』, 東文選, 2008.
- Young Ho Lee, 「Choui Uisun 草衣 意恂(1786~1866) A Liberal Son禪 Master and Engaged Artist in Late Choson朝鮮 Korea」,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98.

Abstract

*Zen priest Joungbo's realm of poetry / Kim Mi Seon**

Joungbo Park-Hanyoung was a Buddhist monk[禪僧] who had virtues throughout “recitation[講]”, “commandment[律]”, “zen/Buddhist meditation [禪]”, “poetry[詩]”. And he was also one of the well-known intellectuals in Korea at that time. There is no doubt that he was a great authority who had been respected by not only the Buddhist society but also great scholars of those days. That fact makes us conclude that the level of his intelligence and personality was so high.

In order that the study of Sukjon be made fully and properly, we need to study with diversified aspects related to him. In this chapter, on account of limited space, I would raise the necessity of research of his poetry in the first place. Therefor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background of forming his poetry, we studied his life, “法脈”, and the sense of poetry.

His sense of poetry was, in other words, “Wha-Um”, and for him, “Wha-Um” was nature, and the nature became well-organized zen-poetry getting out of concept itself.

Here are the summary of his literary work. Among his 禪家詩 詠物詩, those poems with themes of “temples” are prominent. By sublimating human word into zen-word, he expressed the zen-world with symbolical method.

Joungbo himself wrote poems as a Buddhist monk[禪僧], and the poetry which he was pursuing was located in the world of “the inseparable[不二]” which was not distinguished from zen and accorded with the nature. It also imply the perfection of self throughout spiritual enlightenment with samadhi

* Professor of Cheongju Univ. / hawoodang@hanmail.net

[三昧] of no wickedness in thinking[思無邪] and the stage of being Bodhisattva(菩薩) for mankind. That means 禪家詩 made by the result of ascetic exercises is another feature of 石顛詩. We can find that his zen-poetry is namely, the mark of samadhi and attained a stage of “poetry and zen are accorded[詩禪一如]”. The followings are the tasks remaining in this chapter. the study of his diversified thought(idea) Besides his zen-poetry, I am going to deal with nature-poetry[自然詩], greeting-poetry[人事詩], journey-poetry[紀行詩] later, and hope to have your full participation.

【Key words】 Joungho, journey-poetry, nature-poetry, zen

투고일 : 5월 7일, 심사일 : 5월 20일, 게재확정일 : 6월 5일